

# 바이오산업 육성 · 100% 국가책임 보육 · 관광도시 구축

(김성진 후보)

(김성주 후보)

(정동영 후보)

##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③전주 병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다원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주 병 선거구는 제19대 총선의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의 새 이름이다.

이 지역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55),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52),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62) 등이다.

전주 병 선거구는 전북 선거 열풍에 있어 그야말로 '태풍의 눈'과 같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관도는 전북도민의 관심을 넘어서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이나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조사별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김 후보와 국민의당 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나 중앙선관위 원화(이하 중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준으로 김 후보가 정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사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들 중 지난 23일 조선일보(주)밀워브리리서치가 등록한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4.2%p)에 따르면 세 후보의 지지도는 김성진 후보

7.9%, 김성주 후보 37.4%, 정동영 후보 32.4%로 김성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하고 있다. 24일 KBS·연합뉴스(주)코리아리서치센터가 등록한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4.4%p)에 따르면 지지도는 김성진 후보 6.4%, 김성주 후보 42.2%, 정동영 후보 32.0%를 나타냈다. 또한 26일 전북매일신문/모노리서치가 등록한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7%p)에서는 김성진 후보 8.9%, 김성주 후보 39.9%, 정동영 후보 37.9%로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김성주 후보가 약간의 우위를 점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 27일 중앙일보/엠프라인이 등록한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4.0%p)에서는 김성진 후보 5.7%, 김성주 후보 33.9%, 정동영 후보 36.0%를 나타내 정동영 후보가 김성주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30일 등록된 전주MBC·JTV·전북도민일보(주)코리아리서치센터가 등록한 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4.4%p)는 김성진 후보 6.2%, 김성주 후보 39.9%, 정동영 후보 35.1%



새누리 김성진 후보

역세권 다기능 문화 허브  
생태수변관광벨트 조성  
NBA급 KCC체육관 건립



더민주 김성주 후보

혁신도시 혁신역 설치  
육아휴직급여 100% 인상  
기초연금 70%에게 지급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전라밀레니엄파크조성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  
동북부권 스포츠타운 건설

를 보여줬다. 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는 5대 핵심공약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대 약대 유치 ▲역세권 다기능 문화 허브 조성 ▲전주천, 소양천, 만경강, 생태수변관광벨트 조성 ▲NBA급 KCC체육관 건립 ▲정년희망이카데미 유치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약 방향을 전북지역 문화·관광·지역산업의 기반구조 정비에 맞춤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주역과 전북대 주변을 역세권 다기능 문화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전주역 주변 컨벤션센터 건립, 전주역과 전북대 간 아트로드 조성 등이 눈에 띈다. 더민주 김성주 후보는 생활(사회)공약으로 ▲혁신도시 혁신역(광역교통망) 설치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 ▲육아휴직급여 100%인상 ▲정년일자리 70만개 창출 ▲기초연금 70%에게 차등유치 2만원 지

출 등과 경제공약으로 ▲기금본부 이전으로 국제금융도시 조성 ▲탄소산업중심 도시 조성 ▲전통과 미래의 농식품 산업의 수도 전북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문화수도 조성 ▲지역권 동남 성장사업으로 전북균형발전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의 공약은 더민주와 전북도당에서 공약위원회 의를 진행해 전북도의 핵심 현안과 맞춰진 것들이다. 특히 2012년 기금본부 이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김 후보는 세 후보 중 누구보다 기금본부 이전을 통해 전북을 연금 금용중심지로 만든다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관광도시 전주 조성 ▲전라도 탄생 1,000년 기념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 ▲전주 동북부권에 밀류센터 스포츠타운 건설 ▲송천동 농산물센터에 청년파크 건설 ▲덕진동 법원 부지에 디지털 도서관 건립 ▲KCC 홈플러스 개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스스로 전주혁신마을을 조성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만큼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 스포츠타운 건설, 디지털 도서관 등 전주시가 관광도시로서 뻗어나감과 동시에 시민의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특별취재반



세 물이 본격 시작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이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물이에 나섰다. 사진은 같은 날 전주 전라감영 터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후보들이 총선 출정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왼쪽), 전북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들이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가운데), 국민의당 총선 후보들이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



## 4.13 선거 RUN·RUN·RUN

### 더민주 최형재 후보, 총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국회의원 후보(전주시)는 31일 선거문물기간 첫날을 맞이하여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상산고앞 사거리(효자동)에서 개최된 이날 출정식에는 전주시민과 최형재 후보 지지자들 200여명이 참석해 최형재 후보의 총선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최형재 후보는 출정사에서 "이제 향후 4년간 우리의 삶을 결정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다"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실패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면 경제정체를 넘어 경제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장세환 후보, 전북 노인회 방문 등 공식 유세 시작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전주 을)는 서신동 박천수정형외과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이침인사를 하며 공식 유세 등 스타트를 끊고 유세에 들어갔다.



장 후보는 첫 일정으로 대한노인회 전북도연합회(회장 김두봉) 및 전주시 지회(회장 오경남) 사무실, 휴먼시아 아이리파트 노인회에 들러 각 노인회 회장 및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인사를 드린 뒤 여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 후보는 효자동 메디푸드 사거리 서곡 술병원 일대(약 200 인) 서신동 왕국환의원 사거리 등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거리유세를 통해 "인사·예산에서 전북을 홀대하고 차별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경제도 비판도 못한 무능한 더민주를 심판해 강한 전복을 건설하고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 국민의당 도당 "더민주, 유성엽 정치적 이용 말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성엽 후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실천으로 행위를 보여주고 유성엽후보는 토론회 중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에게 예의와 정치적으로이상 지역활동을 하고 출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 이야기는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풀뿌리 지방정치 민선6기를 맞이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을

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친노 친문제인 패권세력에게 정치적인 소신 발언조차 하지 못했던 더민주의 전북 정치인들에게 전북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4·13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유성엽 후보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토론 내용의 방향성을 알면서도 부분적인 말만 가지고 넋두리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심상정 "정의당, 양당체제 극복 도구로 키워달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고양사에서 열린 20대 총선 출정식에서 "정의당은 정권의 독선과 폭주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켜줄 유일한 선명대안이자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되게 싸운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회대의 막장 공천을 통해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새누리당은 진박, 비박, 중중 압부를 방불케 하는 이전부구로 정치모피배들의 사익 추구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아편연대를 논의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민생과 탄을 견제하지 못하고 최근 계파싸움에 골몰하고 당리당리만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이 바라는 선명대안의 길을

버리고 자꾸만 오른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에 대해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해 제당을 키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제당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정책도 노선도 인물도 어떠한 것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서로 다투는 이들에게 정당과 정의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정치가 제대로 된 정당, 아름다운 야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며 "정의당, 기독교 양당정치를 극복하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도구로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전호선 공동선대위원장도 "정의당은 표를 얻기위해 정치철학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함부로 공천 하지 않았다. 정의당 후보를 믿고 찍어 달라"며 "정의당에 힘을 주시면 모든 정당이 정의당을 따라하게 만들겠다. 정치가 정권을 차지하거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이성주 기자

### 도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 오늘까지 건물 등 5532곳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4월 1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총 5532개소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경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

위 사실을 게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장 사유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 전북발전 목회자 130명 정동영 지지

전북발전기독교 목회자 130명은 지난달 31일 정동영 후보(전주병)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들이 세상사에 앞장설수 있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론을 많이 있지만 세상의 소음이 되려는 심경발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전북 정치와 경제는 후퇴했고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전북 현실을 타개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동영 후보 같은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동영 후보는 대목으로 가는 길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상을 반방에 떨칠수 있는 사람이다. 정동영 후보와 함께 잘사는 전북, 자존심있는 전북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 도의회 문건위 현장의정 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상일)는 지난달 31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진흥원이 기업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콘텐츠 제작과 창업 지원에 핵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전북만의 한식과 한스타일,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익산미륵사지 등 다양한 문화자원과 함께 새로운 문화영토 개척을 당부했다.

문건위 위원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산업이 항공우주 및 의약바이오와 함께 미래 3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